

18, 19세기 남성 코트를 응용한 디자인과 패턴 연구

안 현 주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 강사

A Study on the Design and Pattern Applying Men's Coat of 18th and 19th Century

Hyun-Joo An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Hansung University

(2006. 7. 3. 접수; 8. 25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new designs and patterns for men's coat by deconstructing and restructuring 18th and 19th century men's coat. In the postmodern society, the reinterpretation of the past fashion trends or items through extensive historical investigation has been frequently used as new design motifs and the new source of creative fashion design. Especially in the contemporary society, as multifarious forms and presentations are emphasized even in the men's fashion, it is urgently required more than ever to do thorough and extensive research for the design and structure of men's fashion. Therefore, through historical research on men's fashion, the 18th and 19th century men's coat, which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the most developed one in the concept and shape of 'coat,' has been reinterpreted and deconstructed to make new design for men's coat which corresponds to the trends and sensibility of contemporary fashion. In addition to this, to facilitate practical use of this new design by fashion public, the plane patterns for the actual production of these coat designs were presented.

Key Words: Men's coat(남성 코트), Application(응용), Justaucorps(쥐스토코르), Pattern(패턴)

I. 서론

복식은 자연환경을 비롯한 각 시대의 정치, 경제, 예술의 총체적인 상호 작용의 결과 생겨난 것으로 인간의 의지와 감정을 가장 잘 표출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생활상과 사회상을 직접 반영하는 구체적인 형태의 시대적 산물이

다. 현대 복식에서는 과거 복식의 고증과 모방, 그리고 재해석을 통한 표현이 새로운 디자인 모티브로 빈번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중요한 원천이 되기도 한다. 19세기 이후 여성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된 경향을 보여 온 남성패션은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포스트모던 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경향

*Corresponding author ; Hyun-Joo An

Tel. +82-10-9346-8727, Fax. +82-2-3673-2295

E-mail : ahj727@hotmail.com

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었고, 소비자들이 보다 개성화되고 고급화된 감성을 지니게 됨에 따라 시대적 감성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디자인을 통한 새로운 표현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의 남성 패션이 참신함과 독창성을 강조하는 현대 사회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감성이나 형태 등을 자유롭게 해체하고 재구성함으로써 창의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¹⁾

본 연구에서는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다양한 남성 복식의 테마와 아이템 중에서 현대 남성들의 개성 있는 옷차림에서 중요한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한 남성 코트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남성 코트에 관한 기존의 연구로는 이은경·이선경(2001)²⁾이 코트 형태를 다룬 바 있고, 최지은 외(2004)³⁾는 아비 아라 프랑세즈(*habit a la francaise*) 제작 방법을 연구한 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남성 코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대 복식의 중요한 기법으로 자리 잡은 과거 복식 양식의 해체와 재구성성을 통해 새로운 남성 코트의 디자인과 패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코트의 개념 및 남성 코트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그 발전 과정을 살펴 보았으며, 남성복의 획기적 전환기이자 현대적 의미에서 남성 코트의 유형과 형태가 정립되었던 18, 19세기의 코트 유형과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다. 복식사적 고찰을 통해 그 의미와 형태에 있어서 남성 코트가 가장 발전하였던 시기로 파악된 18, 19세기의 특징적인 코트 형태를 해체·응용하여 현대의 패션 경향과 감각에 맞는 새로운 남성코트를 디자인하여 제작하였으며, 이러한 새로운 디자인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물 제작한 남성 코트의 평면 패턴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패턴은 기술 표준원⁴⁾에서 제시한 표준 남성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였다.

현대 남성 복식에서 다양한 형태와 연출이 강조됨에 따라, 남성 복식의 디자인이나 구성, 적합성을 위한 폭 넓은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과거

복식에 대한 단순한 문헌 연구를 넘어선 새로운 디자인과 패턴, 구성에 관한 연구는 창의적인 디자인 발상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인간의 의복 착용 동기를 통해 살펴보면, 코트(coat)는 기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두르거나 걸치는 원시적인 형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점차 사회가 발달하면서 방한의 목적은 물론 권위와 격식, 그리고 예의를 상징하는 수단으로 착용하게 되었다. 원래 코트는 겹옷으로서의 상의를 가리켰는데, 18세기경부터는 상의에 덧입는 오버코트를 의미하게 되었고 그 이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⁵⁾ 현대에 와서 변화된 자연적 환경 및 사회·문화적 환경은 코트의 착용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왔는데 아주 포멀(formal)한 예복에서부터 비즈니스 장소에 어울리는 것,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것 등 나름의 격식이 있어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유형의 코트를 착용하는 것은 남성의 멋을 연출하는 기본이 되고 있다.⁶⁾

1. 코트의 개념

코트의 정의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 의해 보온과 패션을 위해 착용하는 겹옷을 가리킨다. 코트는 일반적으로 긴 소매를 지니고 있으며 앞쪽을 절개하고 버튼, 지퍼, 후크, 토글, 벨트, 혹은 이러한 것들을 조합하여 여미는 옷으로 정의된다. 코트의 어원은 거친 모직 맨틀을 가리키는 고대 독일어 코차(Kozza 혹은 Kozzo)에서 유래하였으며, 중세 13세기 프랑스의 꼬뜨(cote, cotte)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꼬뜨는 남녀가 모두 착용한 긴 소매가 달린 튜닉형의 긴 겹옷을 총칭하는 것으로 영어의 코트(coat)는 이 꼬뜨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⁷⁾

코트는 덮는 것으로의 외투, 외의를 총칭하며, 13세기 이후 모든 계층의 남녀가 착용한 꼬뜨에서부터 14, 15세기의 지퐁(gippon)과 더블릿

(doublet), 16세기의 남성용 짧은 상의로 더블릿 위에 걸쳐 입는 소매가 있거나 없는 재킷(jacket)이나 저킨(jerkin), 페티코트(petticoat)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⁸⁾ 협의의 코트는 17세기 중반 이후에 생겨났는데, 겉옷으로서의 남성복 상의를 가리키며 앞에 여밈이 있고 소매가 달린 가장 겉에 입는 허리길이나 발목 길이의 옷을 지칭한다. 즉 현대에 코트는 오버코트, 레인코트, 탑 코트의 약칭으로 의복 중에서 가장 겉에 입는 소매가 달리고 길이가 긴 외투류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⁹⁾

2. 18세기 이전 외투의 형태

본 연구에서는 복식사적 고찰을 통하여 코트의 유형을 몸에 두르거나 걸치는 형과 앞에 여밈이 있는 밀착형, 튜닉형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남성 상의와 외투로서의 코트의 변천을 살펴보았다.

1) 몸에 두르거나 걸치는 형

몸에 두르거나 걸치는 형의 외투는 고대 복식에서 동방제국이나 지중해 부근의 온난한 지역, 이집트의 사막에서도 나타나는 기본적인 복식이다. 이러한 형태의 외의(外衣)는 추위나 바람과 먼지를 막기 위한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권력자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등 그 착장방식과 형식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형태상으로는 직사각형, 사다리꼴, 또는 반원형의 천을 한 장 어깨에 두르거나 걸치는 경우와 한 장의 천을 여러 번 몸에 둘러서 드레이퍼리 효과를 내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흠먼지나 바람을 막거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한 하이크(haik)라는 솔형의 외의가 있으며 하이크는 천의 크기와 모양, 입는 방법에 따라 케이프(cape), 솔형과 맨틀로 구분된다.¹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외의도 솔형과 맨틀의 형태가 모두 나타나는데 <우르의 스탠다드>나 앗시리아의 부조(浮彫)와 유물에서 다양한 형태를 볼 수 있다. 또한 수메르인의 여성 복

식에서 여러 번 둘러서 입는 드레이퍼리형의 외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 시대의 외의는 히마티온(himation)과 클라미스(chlamys)를 들 수 있다. 히마티온은 남녀가 모두 입었던 키톤(chiton) 위에 겹쳐 입었던 직사각형의 천을 몸에 둘러 입는 솔형의 겉옷이었으며, 클라미스는 원래 병사나 청소년들이 착용했던 짧은 외의로 점점 남녀 모두가 입게 되었는데 짧은 키톤 위에 입혀진 맨틀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그림1>. 로마 복식에서는 튜니카(tunica) 위나 맨 몸에 여러 번 둘러 입었던 드레이퍼리형의 토가(toga)나 그리스의 히마티온에서 유래된 팔라(palla), 팔리움(pallium)의 솔형이나 클라미스에서 유래된 맨틀형의 팔루다멘툼(paludamentum)이 있으며 케이프의 일종으로 라세르나(lacerna), 라에나(laena), 사굼(sagum), 파에놀라(paenula)와 같은 형태가 있다<그림2>. 비잔틴 시대에는 로마 시대의 팔라, 팔리움, 팔루다멘툼 같은 직사각형, 사다리꼴, 반원형의 천을 둘러 입는 형태가 이어져 왔으며, 판초 형식의 긴 케이프인 파에놀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져 온 테셔도 알 수 있듯이 두르는 형의 외의는 거의 변함없이 사용되었고, 팔리움이 줄어서 변한 장식적인 띠의 형태인 로룸(lorum)이 나타났다<그림3>. 비잔틴 시대를 거쳐 중세로 들어서면서 팔라, 팔리움, 클라미스, 팔루다멘툼, 라세르나, 사굼 등은 모두 맨틀의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우플랑드(houppelande)가 유행하면서 맨틀 형태는 점차 사라지고 튜닉형과 밀착형의 소매가 달린 긴 상의 형태가 겉옷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게 되었다<그림4>. 그러나 맨틀의 형태는 귀족들의 권위와 사치를 위한 용도나 방한용, 의식용으로 19세기까지 사용되어 왔으며(나폴레옹의 대관식) 현대에는 대부분의 의식용(주교의 의식용)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2) 튜닉형, 앞을 여미는 밀착형

몸에 끼워 입는 형태인 튜닉형이나 앞을 여미어 몸에 밀착시키는 형태는 페르시아 시대의 유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외투의 형식을 띠고 있는 캔디스(kandys)는 풍성한 로브의 형태로 길이



<그림1> 그리스의 클라미스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그림2> 로마의 라에나
(복식의 역사)



<그림3> 비잔틴 시대의 팔루다멘툼
(20,000 years of fashion)



<그림4> 중세의 우플란드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가 길고 소매와 도련이 어깨에서부터 넓게 퍼져 있으며 주름은 벨트로 정리하였고 팔꿈치부터 소매 끝까지 다른 천을 대어 주름을 잡아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복식이다.¹¹⁾ 오늘날의 코트 형태와 유사한 페르시아인의 코트는 앞 터짐의 단이 겹으로 접혀 있었으며, 소매를 입체적으로 봉제하여 셋인슬리브(set-in-sleeve)가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5>.¹²⁾ 발전된 형태의 튜닉형의 복식은 달마티카(dalmatica)로부터 블리오(bliaut)로 불리우는 험령한 원피스형의 의복으로 변해갔으며, 중세 중기에 이르러 몸에 꼭 맞는 의복으로 변화되면서 코트의 어원이라 할 수 있는 꼬뜨라는 명칭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중세 말기에 와서 꼬뜨의 변형으로 꼬따르디(cotehardie)가 나타났는데 남녀 모두 입었던 이 복식은 상체 부분은 몸에 꼭 끼이고 앞트임으로 웨이스트를 가늘게 하고 가슴을 높게 재단한 상의로 타이트 슬리브에는 팔꿈치까지 단추가 달려 있어 코트의 형태를 보이기 시작한 복식으로 볼 수 있다.¹³⁾ 그 위에 입었던 중세의 장식적인 겹옷인 쉬르코(surcot)는 무릎길이의 것, 발목길이의 것 등이 있었고, 의복의 구성도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여 겹옷의 새로운 모드의 원천이 되었다<그림6>. 쉬르코의 변형으로 소매와 후드가 달린 방한용의 외투가 생겨났는데 가나슈(ganache)와 가드코프(gardcorp)가 그것이다. 14세기에 나타난 대표적인 남성 외투는 우플란드였는데, 목 부분에서 아래 끝까지 앞 터짐이 되어 있는 형태를 지닌 것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앞부분만 조금 트여서 단추를 채우게 된 것도 있었다. 이 복식은 풍

성한 스타일로 소매가 특징적이며, 무릎에서 바닥까지 닿는 길이로 매우 화려하고 웅장한 형태로 나타났다.¹⁴⁾ 이렇게 튜닉형, 밀착형의 외투 형태는 중세에 들어와서는 그 형태와 구조가 다양해지고 화려해져서 방한의 목적보다는 권위와 위용, 사치를 보여 주기 위한 장식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외투라는 현대적 의미에서가 아니라 남성복의 상의라는 뜻으로 사용된 코트의 원형으로는 14세기 프랑스의 푸르푸앵(pourpoint)을 들 수 있다. 병사들의 겨울옷에서 변화된 푸르푸앵은 단추로 앞을 여미게 되어 있고 허리까지의 길이이며 소매가 꼭 끼고 허리가 잘 맞는 복식이다.¹⁵⁾ 코트라는 용어도 주로 남성의 짧은 상의 즉, 지팡, 저킨, 푸르푸앵에 적용하여 사용되었으며,¹⁶⁾ 남성복 상의의 코트와는 달리 분리되어 실외에서 입는 겹옷으로서의 외투는 오버코트의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르네상스 시대의 소매가 달린 외투로서의 겹옷인 자케트를 들 수 있는데, 고관과 전문직은 길게, 유행을 따르는 사람은 짧게 입었다<그림7>.¹⁷⁾ 또한 이 시기에 셔츠, 조끼, 코트, 바지, 오버코트와 같은 아이템을 가진 남성복식의 형태가 갖추어져 현대의 복식구조와 비슷해졌다. 푸르푸앵, 저킨, 자케트 같은 남성복 상의는 중세의 긴 남성복 대신 기능적이고 활동적인 짧고 특색 있는 남성복이 관심을 끌게 되었던 것이다.

17세기는 시민문화의 육성으로 인해 16세기의 귀족풍 의상이 점차 감소하였으며 남성복은 기능성을 살린 시민복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짧아



<그림5> 페르시아의 코트
(복식의 역사)



<그림6> 중세의 슈트코
(20,000 years of fashion)



<그림7> 16세기 푸르푸엥과
자케트
(20,000 years of fashion)



<그림8> 17세기 브란덴부르크
(복식의 역사)

진 푸르푸엥과 랭그라브(rhinegraves), 맨틀을 대신한 코트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쥐스토코르(justaucorps)라는 남자 상의가 나타났다.¹⁸⁾ 이 시기의 외투는 맨틀이나 케이프가 대부분이지만 형태는 매우 기능적으로 변하였으며, 맨딜리온(mandilion), 캐서크(cassock), 브란덴부르크(brandenbourgs)<그림8> 같은 헐렁하고 활동적이며 기능적인 외투의 형태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다.



<그림9> 17세기 쥐스토코르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남자 상의로서의 협의의 코트 형태는 17세기 후반에 나타난 긴 상의인 쥐스토코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그림9>.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의 푸르푸엥은 베스트 또는 웨이스트코트(waist-coat)로 변화했고, 캐서크에서 유래되었다는 쥐스토코르는 코트로 정착하게 되었다. 16세기 중반에 시작된 두껍고 큰 외투인 캐서크는 원래 승마나 사냥을 즐기는 사람과 군인이 주로 착용하는 실용복으로 허리까지는 타이트하고 허리에서 아래쪽 스커트 부분이 퍼져 무릎까지 내려오며 소매가 달린 그레이트코트의 일종이라는 것이 정설이다.¹⁹⁾ 이 시기까지 외투로는 맨틀이나 케이프 같은 형태가 많았는데 이것들은 실외용의 외투로 정착하게 되었고 쥐스토코르가 나타나면서 남성용 상의로서의 걸옷 역할을 하게 되었다.

3. 18, 19세기 남성 코트의 특성

1) 18세기

근대 남성복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쥐스토코르는 남성복의 단순화와 기능화가 시작된 출발점이었으며, 18세기를 거쳐 19세기에 등장하는 코트 스타일은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기 형태의 쥐스토코르는 튜블러 한 직선적인 실루엣에 라운드 네크라인을 지니고 있었으며, 무릎 정도의 길이에 앞 중심에는 단추가 촘촘하게 달리고 소매부리에는 겹으로 접힌 넓적하고 장식적인 커프스가 달려 있었다. 쥐스토코르는 18세기 말까지 변화를 거듭하는데 먼저 실루엣은 초기의 튜블러 한 직선형에서 1680년대부터는 허리가 꼭 맞으면서 코트의 스커트가 플레이지기 시작하고 옆선에는 두세 개의 주름이 있던 것에서, 18세기 중반까지 허리부분은 꼭 맞고 양쪽 옆선과 뒤 중심에 트임이 있으며 도련에 고래수염을 넣어 플레이지는 형태를 유지하였다. 1740년 이후 허리선 아래부터 뒤쪽으로 휘어지기 시작하여 1760년 이후에는 플레이진 모양이나 뺏뺏하게 심을 넣은 것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러운 형태로 코트의 볼륨이 줄어들었다.²⁰⁾ 1780년 이후 코트의 앞자락 끝이 무릎 뒤 쪽으로 가서 바지를 다 드러내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으며, 1790년 이후에는 앞자락이 잘려서 현대의 테일코트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칼라의 형태는 라운드 네크라인에서 1720년 이후 목둘



〈그림10〉 18세기 프락코트
(20,000 Years of Fashion)



〈그림11〉 18세기 르덴코트
(복식의 역사)



〈그림12〉 19세기 르덴코트와 테일코트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레의 스탠드본이 위로 올라가더니 1760년대에는 1인치가 넘는 하이네크로 변화하였고, 1790년대에는 어깨로 내리 접히면서 칼라와 라펠이 생겨나 남성코트의 테일러드 칼라의 원형이 되었다. 쥐스토코르의 소매는 초기에는 겹으로 접힌 넓적하고 장식적인 커프스가 특징적이었는데, 1690년대 이후에는 넓은 커프스를 팔꿈치 위로 접어 올려 단추로 고정하였다. 18세기 초기에는 소매통이 잘 맞게 변화하였으며, 커프스 없이 소매 끝에 트임이 있고 단추가 달리는 형태와 넓적한 커프스가 달린 것이 있는데 이 커프스는 바뀌 달 수 있도록 하였다. 18세기 후기에 이르면 커프스는 점점 없어지고 소매 폭이 좁아지고 손목에 잘 맞게 되었으며 수를 놓거나 브레이드 장식과 단추를 달아 장식적이 되었다.²¹⁾ 쥐스토코르의 소재는 시민복에서 유래한 초기에는 모직을 많이 사용했지만, 귀족복식으로 화려해지면서 소재도 고급스러워져서 벨벳, 실크 등을 사용하고 금·은사로 수를 놓거나 코드로 장식하는 등 사치스런 복식이 되었다. 18세기 중반 이후 일반인들이 쥐스토코르를 많이 입게 되면서 궁정복·예복에서는 실크, 브로케이드, 꽃무늬 벨벳 등을 이용하였고, 일상복에는 다마스쿠, 벨벳, 새틴, 모직물 등을 사용하여 수수한 남성코트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쥐스토코르는 실용적인 복식에서 귀족들이 착용하게 되면서 권위와 부를 과시하는 장식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화려하고 고급스러우며 곡선적인 취향의 모습을 보이다가 18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기능성과 실용성을 갖춘 심

플한 라인을 추구하는 새로운 모드로 변하게 되었다.

이런 경향과 더불어 18세기 후반의 실용적인 코트는 심플해진 라인의 쥐스토코르와 함께 프록코트(frock coat)와 르덴고트(redingote)가 유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18세기 후반부터는 단순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려는 욕구로 인해 점점 더 느슨한 형태의 의복을 도입하게 되었다.²²⁾

1730년 이전에는 노동자계층의 험렁한 코트였다가 1770년경부터 많이 등장하게 된 프록코트는 실용적인 형태로 몸에 끼지 않게 앞의 오픈닝은 허리에서 단까지 사선으로 잘리어 앞이 많이 열려 있고 뒷단에 슬릿이 있었다<그림10>. 현재 남성코트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턴다운 칼라(turn-down collar)가 달렸으며 몸판과 다른 색상이나 벨벳을 활용하여 칼라를 강조했고, 소매는 활동하기 편한 정도의 넓이를 지니고 있었다. 소재는 실용성을 고려하여 모직물, 능직면이나 서지 등을 사용하였으며 색상은 어두운색이 주를 이루었다. 불필요한 여유분이나 장식을 없어서 활동하기 편하게 구성된 이 복식은 1780년경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루이16세 때에는 사치스러운 쥐스토코르의 다른 명칭인 아비아라 프랑세즈 대신 궁중의 공식복장으로 지정되었으며, 1790년 이후 쥐스토코르처럼 테일코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르덴고트는 영국의 라이딩코트(riding coat)가 프랑스로 들어온 것으로 178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앞단에 단추가 달리고 허리선이 들어가고 힙에 주름은 없으나 길이가 길고 험



<그림13> 19세기 탑코트
(복식의 역사)



<그림14> 19세기 가릭
(The Mode in Costume)



<그림15> 19세기 체스터필드
(복식의 역사)

(hem)둘레가 비교적 넓고 뒤 중앙에 슬릿을 넣어 활동이 편하게 구성되어 있다<그림11>. 소매는 좁거나 넓적한 커프스가 달려 있는 것이 있으며 칼라가 2-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큼직한 칼라와 라펠이 특징인 복식이다. 이 복식은 그레이트코트(greatcoat)라고도 하였으며 낮 동안의 일상적인 의상이 되었고, 더 이상 여행이나 스포츠에 한정되지 않게 되면서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²³⁾

2) 19세기

19세기에는 남성복의 코트나 바지 재단법에 남성 신체에 꼭 맞게 하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발전이 이루어졌다.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 남성복식은 화려한 색상과 직물이 아니라 어두운 회색, 갈색 등의 수수한 색상과 모직물, 벨벳, 면직물 등으로 바뀌었으며, 장식은 칼라에 새틴이나 벨벳 등의 다른 직물로 매치하는 정도의 수수한 형태로 바뀌었다.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 입는 구분이 뚜렷해졌는데 정장과 평상복의 차이는 전혀 다른 형태에서가 아니라 옷감의 재질, 색상, 단추, 액세서리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었다.²⁴⁾ 그리고 이 시기에 형성된 코트의 유형은 허리선에서 앞부분을 잘라 낸 테일코트<그림12>, 앞 중심 허리선에서 헴 라인(hem line)까지 사선으로 잘려진 모닝코트, 앞판이 도련까지 약간 경사지게 벌어진 프록코트, 스커트 부분이 없이 힙선까지 짧아진 라운드 코트(round coat) 또는 자켓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남성코트는 정장과 활동적인 평

상복, 옥외용 코트로 구분되어 형태에 변화를 보였다.

퀴스토코트가 변화하여 1800년경에 나타난 테일코트는 허리선에서 앞부분을 잘라낸 것이었는데, 1830년경 이후 스커트 품이 넓어지고 길이가 길어지면서 양쪽으로 벌어지는 곡선이 되었다. 19세기 말이 되면서 테일코트는 저녁모임이나 정식모임에 입는 정장용 예복이 되었다. 허리는 꼭 맞고 약간 플레어된 스커트 부분이 달려 있는 프록코트는 낮에 입는 옷으로 인기가 있었고, 뛰어난 실용성으로 인해 이 옷은 19세기 전체를 통하여 남성복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²⁵⁾ 이 코트는 19세기 말까지 일반 남성들에게 정장용으로 입혀지다가 점차 모닝코트로 대체되었다.²⁶⁾ 1850년 이후 남성복식에 생겨난 가장 큰 변화는 코트와 바지를 같은 옷감으로 만들고 적당하게 맞는 디토슈트(ditto suit)가 등장하였으며 지금까지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는 코트에서 현대의 자켓 모양에 가까워진 박스형으로 변화되고, 소매둘레가 넓어져 정장이 아닌 일상복이나 스포츠 웨어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이다. 디토슈트가 소개되면서부터 코트는 슈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예장용 코트와 일상복인 슈트, 오버코트로 분류되어 변화하기 시작했다. 1870년대의 모닝코트는 허리선보다 약간 낮게 절개선이 있으며 앞자락이 사선으로 재단되어 있으며, 테일러드 칼라에는 벨벳으로 윗 칼라를 대었고, 이후 낮에 입는 정장용 예복이 되었다. 1880년대에 디너자켓으로 테일코트와 색코트가 절충된 모양과 기능을 가진 라운지슈트가

나왔는데, 이는 정식모임이나 비공식적인 저녁 파티에 입었으며 텍시도란 이름으로 현재까지 중요한 예복으로 이용되고 있다.

19세기 외투로서의 오버코트는 탑코트(프:르덴고트), 그레이트코트(프:까릭), 체스터필드코트, 프록 그레이트코트, 인버네스코트 등이 있다. 탑코트는 싱글이나 더블 여밈으로 뒤판을 4장으로 재단하여 허리가 잘 맞고 스커트 부분이 후레아지거나 품이 넓은 것이 특징이며<그림13>, 그레이트코트는 무릎길이나 발목 길이로 품이 넓고 케이프가 달린 코트이다<그림14>. 19세기 중반 이후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지 않고 칼라를 벨벳이나 새틴으로 멋을 낸 박스코트가 등장하였는데 체스터필드코트로 대중들에게 널리 입혀진 활동적인 외투이다<그림15>. 19세기 중엽 영국의 체스터필드 백작의 이름을 딴 것으로 프록코트의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여 한 이 코트27)는 정장용의 코트로 다양하게 변화하여 현대 남

성코트의 기본형이 된 대표적인 복식이다. 1850년대에는 허리가 꼭 맞고 아래 스커트 부분이 약간 플레이진 탑 코트의 발전 형태인 프록 그레이트코트(탑 프록코트)가 유행하였고 여행이나 저녁 파티, 극장에 갈 때 소매 없이 케이프가 달린 인버네스코트가 19세기 말까지 유행하였다. 이로써 테일코트, 프락코트, 모닝코트, 텍시도는 예복으로, 슈트로 구분되어진 노포크자켓, 블레이저자켓 등은 슈트 형태로 체스터필드코트, 그레이트코트, 인버네스케이프, 까릭 등은 외투로서의 오버코트로 구분되었다.

III. 18, 19세기 남성코트의 디자인 특징 분석

앞에서 살펴본 18, 19세기 남자 코트의 다양한 디자인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표1> 18, 19세기 남자코트의 디자인 특징 분석

시대	명칭	특징	실루엣	여밈	칼라, 라펠	길이	소매	디테일	소재
18세기	퀴스토 코트	· 초기: 스커트 부분이 풍성한 · 후기: 연미복 형태	· 초기의X형에서 후기에 H형으로 변화함	· 싱글 여밈	· 스탠드칼라	· 무릎길이	· 좁고 긴소매 · 장식적 커프스	· 장식성이 뛰어난 · 자수 · 보석장식 · 단추장식	· 예복:실크, 브로케이드 · 일상복: 다마스크, 벨벳, 새틴, 모직물
	프록코트	· 시민들의 실용복 · 뒤트임 · 활동을 위해 여유분 · 연미복 형태	· H형 실루엣	· 싱글 여밈 · 더블 여밈	· 턴다운칼라 · 스탠드칼라	· 무릎길이	· 손목까지 오는 · 좁고 긴 소매	· 깃속 장식 · 벨벳, 새틴 등의 다른 천으로 칼라 장식	· 모직물, 능직 면포, 서지
	르덴고트	· 영국의 승마용 코트 · 허리 피트, 탭 둘레 넓음	· X형 실루엣	· 싱글 여밈 · 더블 여밈	· 2-3층의 큼직한 칼라와 라펠	· 무릎아래 길이	· 좁고 긴 소매 · 넓은 커프스	· 브레이드 장식	· 벨벳, 모직물, 실크
19세기	프록코트 테일코트 모닝코트	· 연미복 형태 · 현대예복의 형태	· 몸에 잘 맞는 H형 실루엣	· 싱글 여밈 · 더블 여밈	· 스탠딩칼라 · 솔칼라 · 노치드 칼라	· 무릎길이	· 좁고 긴 소매	· 테일, 모닝코트는 앞지락이 잘러나감	· 예복: 벨벳, 실크 · 일상복: 모직물
	탑코트 (르덴고트)	· 방한용 외투 · 뒤판을 4장으로 재단 · 허리가 잘 맞고 스커트부분이 여유 있고 품이 넓음	· X형 실루엣	· 싱글 여밈 · 더블 여밈	· 턴다운칼라 · 스탠드칼라 · 솔칼라	· 무릎아래 길이	· 버튼밴드 · 좁고 긴 소매	· 칼라장식 (모피, 새틴, 벨벳, 브레이드)	· 모직물, 벨벳
	그레이트 코트 (까릭)	· 몸에 꼭 끼는 형태 · 3-5개의 케이프와 탭	· Y형 실루엣 · H형 실루엣	· 싱글 여밈	· 폭이넓은 스탠드칼라	· 무릎길이 · 발목길이	· 길고 넓은	· 2-3겹의 케이프 장식	· 모직물
	색코트	· 코트 바지, 조끼를 같은 감으로 제작	· H형 실루엣	· 싱글 여밈	· 노치드칼라 · 턴다운 칼라	· 무릎길이 · 무릎위길이	· 통이 넓은 긴 소매 · 나글란 소매	· 새틴 바인딩칼라	· 모직물
	체스터 필드 코트	· 모피 안감 · 칼라 윗부분은 다른 천	· H형 실루엣	· 싱글 여밈 · 더블 여밈	· 노치드칼라	· 무릎아래 길이	· 좁고 긴 소매	· 칼라장식 (벨벳, 새틴)	· 모직물
	탑프록 코트	· 허리가 잘 맞고 스커트 부분이 부풀어짐 · 탑코트의 발전 형태	· X형 실루엣	· 더블 여밈 · 싱글 여밈	· 턴다운칼라 · 스탠드칼라	· 무릎길이	· 좁고 긴 소매	· 벨벳칼라	· 모직물
인버네스 케이프 코트	· 케이프에 소매 달린 코트 · 벨트착용 · 화려한 안감	· Y형 실루엣	· 싱글 여밈 · 더블 여밈	· 턴다운칼라	· 발목길이	· 넉넉한 소매	· 더블 파이 핑 · 케이프	· 모직물	

다음과 같다.

첫째, 코트의 실루엣은 18세기 초반 허리라인은 꼭 맞고 스커트 부분을 과도하게 부풀린 X형 실루엣이었다가 점차 과장된 스커트 부분이 줄어들면서 후반에는 전체적으로 몸에 잘 맞는 H형의 실루엣으로 변화하였으며, 19세기에는 불필요한 장식이 줄어들고 심플한 실루엣으로 변화하였다.

둘째, 18, 19세기 남성 코트의 세부적인 특징으로 코트의 길이는 무릎길이어거나 무릎 아래 길이에서 19세기 중반 색코트가 등장하면서 무릎 위 길이로 짧아졌으며, 오버코트도 발목길이였다가 점점 짧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소매형태는 18세기 초반 헐렁하고 커다란 커프스가 달린 것에서 좁고 긴 몸에 잘 맞는 형태로 변화하였다, 19세기 중반이후 넉넉한 활동적인 소매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칼라의 형태는 라운드네크 라인이나 좁은 스탠딩 칼라에서 18세기 중반이후 칼라와 라펠이 생겨나고 19세기에는 칼라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장식적이 되었다.

셋째, 디테일은 18세기 초반에는 단추와 자수, 보석, 브레이드 장식이 화려하였으나, 18세기 후반이후 화려한 장식성이 사라지고 칼라에 벨벳, 새틴 등의 다른 천으로 장식하거나 새틴을 이용한 바인딩, 더블 파이핑 등 수수하지만 격조 있는 장식을 선호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소재는 18세기 쥐스토코르가 예복으로 이용될 때는 금은사로 직조한 화려한 직물로 실크, 브로케이드 등을 사용하였는데 일상복일 경우 다마스크, 벨벳, 새틴, 모직물로 실용적으로 변화하였으며 19세기 이후 코트와 오버코트는 예복일 경우 벨벳, 실크 등을 이용하였고 보통 수수한 모직물을 사용하게 되었다.

<표1>는 18, 19세기 남자코트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IV. 남성코트의 디자인과 실물 제작

위에서 살펴본 18, 19세기 코트의 디자인 특징분석을 토대로 하여 이 시기의 가장 특징적인

사진 자료를 세 점 선정하였고, 이 사진을 기초로 하여 18, 19세기 남성 코트의 디자인 특징인 실루엣, 칼라와 라펠, 커프스, 디테일의 형태를 응용하여 현대적 감각에 적합한 새로운 코트의 디자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남성 코트를 제작하기 위한 사이즈는 2004년 기술표준원의 Size Korea의 성인 남성 연령대별 직접측정치 평균측정치 평균치수를 참고하여 남윤자·이형숙²⁸⁾이 제시한 현대 남성의 표준체형 기본치수 키 175cm, 가슴둘레 96cm, 허리둘레 82cm, 엉덩이둘레 96cm, 소매길이 63cm를 이용하여 기본원형²⁹⁾을 제도하고 이 원형을 토대로 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평면 패턴을 제작하였다. 이 평면 패턴을 기초로 하여 3점의 코트를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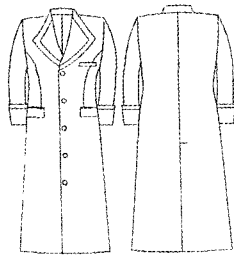
1. 작품 1 : 르댕 고트의 응용

<그림16>은 18세기 후반의 르댕 고트로 허리는 신체에 꼭 맞고 햄 라인이 넓은 형태로 이중라펠이 특징적이다. 이 코트를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한 작품은 라펠과 커프스, 그리고 장식적 요소인 자수 장식을 이용하여 복고풍으로 디자인하였다. 모티브 복식의 라펠을 응용한 이중칼라로 디자인을 강조하였으며, 소매는 커프스의 무거운 느낌을 피하기 위해 덧단 형태로 처리하였다. 장식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중칼라의 안쪽 칼라와 소매부분에 다른 천으로 배색하였고, 자수를 놓아 디자인을 강조하였다. 최근의 남성복 경향³⁰⁾에 맞추어 몸에 맞게 패턴을 구성하였는데, 어깨와 소매는 원형에서 수정하지 않아 꼭 맞게 하였으며, 앞길 패턴에서 프린세스라인과 옆선을 이용하여 총 3.5cm의 허리 여유분을 없애고, 옆길에서 2cm, 뒷길 패턴 옆선에서 2.5cm, 뒤 중심에서 3cm 정도 여유분을 없애서 타이트하게 구성하였다. 힙 부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A라인을 형성하도록 패턴을 제작하여 전체적인 실루엣은 허리라인을 몸에 꼭 맞게 제작하여 어깨가 강조되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다. 칼라는 라펠의 폭은 접히는 선에서 20cm로 넓게 하였고 안쪽의 것은 배색효과를 주기 위해 2.5cm 정도 작게 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칼라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뒷목둘레의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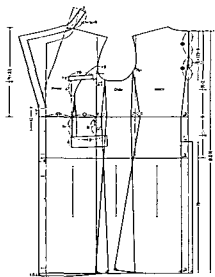
탠드 분은 2.5cm를 유지하였고 라펠에서 연결하여 구성하였다. 소매는 활동성을 고려하여 한 장 소매로 <그림16>의 형태보다는 여유 있게 제작하였으나, 신체에 맞게 하였으며 코트길이를 무릎보다 길게 하여 패서너블한 현대적 감각의 코트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 코트는 방한의 목적보다는 각종모임이나 작은 파티를 위한 준 예복의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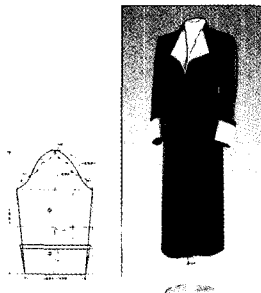
<그림16>
작품1의 디자인 모티브
1795년 르덴고트(Men's Fashion)



<그림17>
작품1 도식화



<그림18>
작품 1 평면패턴



<그림19> 작품 1
실물사진

<그림16>은 디자인 발상을 위한 18세기 후반 남자 복식 사진자료이며 <그림17>는 디자인된 코트의 도식화이다. <그림18>는 디자인된 코트의 평면패턴이며 <그림19>는 제작된 코트의 실물사진이다.

2. 작품 2 : 테일코트의 응용

작품 2는 19세기 초반 쥐스토코르가 변화된 형태인 테일 코트로 몸에 잘 맞는 형태로 높은 스탠딩 칼라가 특징적이며 앞자락이 잘려나가

현대 예복의 형태이다. 작품 2는 테일 코트의 칼라와 라펠의 형태를 강조하여 남성적인 코트를 디자인하였다. 스탠드분이 높은 칼라와 가슴을 덮는 라펠은 강인한 남성적 이미지를 주는 디자인 요소로 이용되었으며, 심플한 라인의 코트를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하였다. 남성 신체의 라인을 강조하는 실루엣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본원형에서 어깨와 소매 부분은 수정하지 않았고 7cm의 스탠드 분이 있는 칼라를 부착하기 위해 앞길 패턴 옆 목점에서 1cm 정도 네크라인을 내렸으며, 라펠의 폭은 18cm로 하였다. 최근 경향에 따라 허리 라인에서 앞길 패턴에서는 다아트 폭 1.5cm, 옆선 1cm, 옆길 패턴에서 1.5cm, 뒷길 패턴 옆선에서는 2cm, 뒤 중심에서 3cm 정도 여유분을 없애서 허리에 꼭 맞게 구성함으로써 어깨가 강조되는 효과를 주었다. 스커트 부분을 A 라인으로 약간 플레이지게 하고 무릎보다 20cm 정도 내려오는 긴 코트길이에서 오는 비활동적인 면을 고려하여 뒤트임을 60cm 정도 길게 하여 활동성을 살렸다. 소매는 암홀 라인에 꼭 맞게 하였고, 두장 소매로 제도하였으며, 1cm 폭의 웰트포켓과 6cm 폭의 플랩포켓이 있으며, 3cm 폭의 앞여밈은 4개의 싸개 단추로 구성하여 통일감을 주었다. 이 코트는 멋스러움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각종 행사나 작은 파티의 준 예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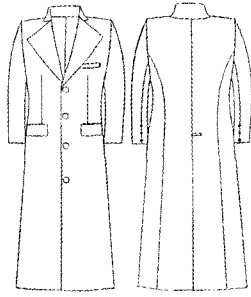
<그림20>은 나폴레옹의 테일 코트로 디자인 발상을 위한 사진 자료이며 <그림21>은 작품 2의 도식화이다. <그림22>는 작품2의 패턴이며 <그림23>은 작품 2의 실물사진이다.

3) 작품 3 : 쥐스토코르의 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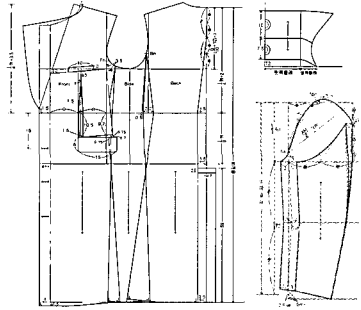
작품 3은 18세기 중반 쥐스토코르의 형태로 프레데릭의 결혼식에서 그의 아버지인 크리스티앙 6세가 입었던 복식으로 윗몸은 잘 맞고 스커트의 폭을 넉넉하게 하여 주름을 잡았으며 뒤에도 주름을 잡아 넉넉한 여유분을 둔 형태이다. 작품 3은 이 쥐스토코르의 플레어진 뒤 모양을 응용한 디자인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구성하였는데, 18세기의 몸에 꼭 맞는 X형 실루엣에서, 활동성을 고려하여 어깨가 몸에 꼭 맞으면서



<그림20>
작품2의 디자인 모티브
1804년 나폴레옹의 테일코트
(FASHION: the Mirror of History)



<그림21>
작품2의 도식화



<그림22>
작품 2의 평면패턴



<그림23> 작품 2의
실물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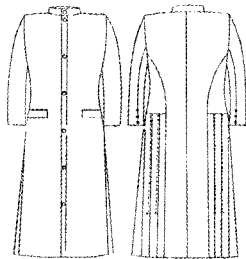
H형의 심플하고 슬림한 실루엣으로 디자인하였다. 18세기 스커트 부분의 부풀렸던 형태를 응용한 이 코트는 뒤 중심에서 48cm 정도 내려온 힙선 위에서 절개하여 위 옆길 패턴은 따로 구성하였고, 스커트부분에 있는 주름 분은 뒷길 패턴으로 연결하여 구성하였다. 뒷길 패턴에서 3.5cm 폭의 주름을 세 개 넣어 디자인을 강조하였고, 주름이 흐트러지지 않게 주름분에 45cm 길이의 상침으로 장식하여 세련되고 단정한 느낌이 나도록 하면서 활동성을 강조하였다. 옆길 패턴의 폭을 뒷길 쪽으로만 2cm 정도 옮겨서 넓게 하고 상대적으로 뒷길 폭은 그만큼 줄어들면서 옆길과 뒷길의 연결부분이 프린세스라인이 되게 구성하였다. 단정한 3cm 폭의 스탠딩칼라와 1cm폭의 웰트 포켓이 달렸으며, 코트의 앞길은 스탠딩

칼라와 앞여밈 부분, 포켓에 코트 색상과 같은 색상의 공단을 덧대어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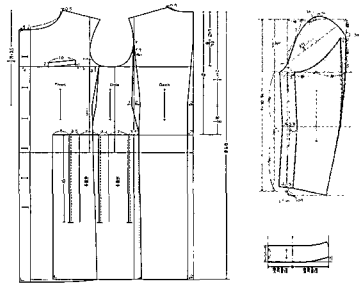
<그림24>는 19세기 후반의 쥐스토코르 형태로 작품 3의 디자인 모티브 사진 자료이며 <그림25>는 작품 3의 도식화이며 <그림26>은 작품 3의 패턴이며 <그림27>는 작품 3의 실물사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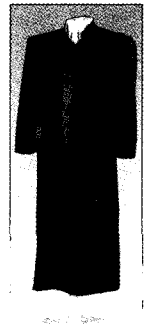
<그림24>
작품 3의 디자인 모티브
Suit of King Christian VI, 1743
(The History of Costume)



<그림25>
작품 3의 도식화



<그림26>
작품 3의 평면패턴



<그림27> 작품
3의 실물사진

V. 결론

본 연구는 개성적인 멋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현대 남성들의 중요한 아이템이 된 코트의 디자인 창안에 정확하고 실리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코트의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코트의 형태

가 정립된 18, 19세기 남성 코트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코트를 디자인하고 평면패턴으로 구성하여 3가지 다른 코트를 실물 제작하였다.

18, 19세기의 남자코트는 그 의미와 형태에서 가장 발전하였던 시기임을 고려하여 코트의 유형별로 디자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시기의 남성 복식은 인체에 맞게 하는 재단과 재봉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체의 곡선을 돋보이게 하는 실루엣이 등장하였고 19세기에 이르러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

둘째, 화려한 자수, 보석장식 등은 감소하였고 바인딩 장식이나 칼라나 포켓에 다른 천을 덴 수수한 장식으로 바뀌었으며, 목장식이 단순해짐에 따라 칼라는 스탠드칼라, 턴다운칼라, 노치드칼라 등으로 매우 다양해졌다.

셋째, 18세기의 코트는 19세기에 이르러 현대 예복의 형태와 오버코트의 형태로 다양하게 변화하였고 코트의 원래 기능인 방한의 목적은 물론 예의와 격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위의 18, 19세기 코트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의 코트를 구상하여 패턴을 구성하고 실물을 제작하였다.

첫째, 작품 1은 18세기 후반 르댕 고트의 칼라와 라펠, 커프스의 형태를 응용한 디자인으로 뒤 칼라를 2cm 폭의 스탠드칼라로 하고 이중 라펠로 강조하였으며 커프스의 형태를 응용한 잘 맞는 소매형태로 디자인하였고 안쪽 라펠과 커프스를 다른 색상과 자수 장식을 하여 복고풍의 느낌이 나도록 하였다.

둘째, 작품 2는 19세기 초 테일코트를 응용한 것으로 스탠드 분이 높은 칼라와 큰 라펠을 강조한 디자인이다. 허리가 피트되고 헐 라인은 비교적 넓은 실루엣이며 소매는 두 장 소매로 구성되었으며, 앞여밈은 3cm 폭의 싸개단추 4개가 달린 무릎 아래 길이로 디자인된 코트이다.

셋째, 작품 3은 18세기 중반의 퀴스토코트를 응용한 것으로 뒤 모양에 3.5cm 폭의 주름을 3개 넣어 기능성과 활동성, 장식성을 살린 디자인

이다. 몸에 맞는 H형의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뒷길에 있는 프린세스라인으로 날씬하게 보이게 구성하였고 앞여밈과 칼라, 포켓을 같은 색의 새틴으로 장식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하였다.

넷째, 위 3점의 작품은 패드를 대어 어깨를 강조하던 과거의 과장된 남성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최근의 남성 패션 경향에 맞추어 허리라인을 몸에 꼭 맞게 하여 상대적으로 어깨가 강조되어 보이게 하며 신체에 꼭 맞는 패턴으로 남성미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독특한 칼라와 라펠 디자인으로 남성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남성 코트의 과거 복식을 응용하여 작품제작을 실시한 결과, 복식사에서 취한 의복 형태와 기법의 도입은 다양한 복식표현을 가능케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과거와 현대의 조화가 이루어진 패션을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 복식에서 그 모티브를 찾아내고 이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해석함으로써 새로운 복식 디자인을 제시하고 정확한 패턴을 같이 제시하는 작업은 작품제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현대 패션의 다양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이경희 외 (2001). *패션 디자인 발상*. 교문사, p.3.
- 2) 이은경, 이선경 (2001). 남성복 코트(Coat)의 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 *Living Science (Daejeon Univ.)* 1(7), pp.89-107.
- 3) 최지은, 윤선미, 윤보연, 배수정 (2004). 무대 의상을 위한 18세기 복식의 현대적 제작 방법(제1보)-Habit a la Francaise를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4(7), pp.27-40.
- 4)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4).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 Size Korea. 자료검색일. 2006. 5. 15. 자료출처 <http://sizekorea.ats.go.kr>
- 5) 남윤자, 이형숙 (2005). *남성복 패턴 메이킹*.

- 교학연구사, p.248.
- 6) 권수에 외 (2005). *현대사회와 패션*. 교학연구사, p.111.
 - 7) 야후백과사전 (2006. 1. 1.). 외투. 자료검색일. 2006. 7. 7.
자료출처 <http://kr.dic.yahoo.com/search/enc/>
 - 8) 이경희 외 (2006). *복식의 아이템*. 경춘사, pp.254-255.
 - 9) 이은경, 이선경 (2001). Op. cit., p.90.
 - 10) 신상옥 (2002). *서양복식사*. 수학사, p.18.
 - 11) 정홍숙 (2000).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37.
 - 12) Payne, B., 이종남 외 역 (1988). *복식의 역사 -고대 이집트에서 20세기까지*. 까치, p.66.
 - 13) 신상옥 (2002). *서양복식사*. 수학사, p.126.
 - 14) 이종남 외 (1988). Op. cit., p.231.
 - 15) 신상옥 (2002). Op. cit., pp.127-128.
 - 16) 이경희 외 (2006). Op. cit., p.257.
 - 17) 이종남 외 (1988). Op. cit., p.310.
 - 18) 야후백과사전 (2006. 1. 1.). Op. cit.
 - 19) 이경희 외 (2006). Op. cit., p.258.
 - 20) Avril, H., Susan, N. (1998). *Fashion in Detail*. New York: Rizzoli, p.45.
 - 21) Payne, B. (1965).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p.450.
 - 22) Boucher, F. (1965). *20,000 YEARS OF FASHION*. New York: Harry N. Abrams, p.311.
 - 23) Ibid., p.310.
 - 24) 신상옥 (2002). *서양복식사*. 수학사, p.227.
 - 25) Payne, B. (1988). Op. cit., p.520.
 - 26) 이은경, 이선경 (2001). Op. cit., p.96.
 - 27) 타이콘 패션연구소 (2003). *남자의 옷 이야기* /1. 시공사, p.179.
 - 28) 남윤자, 이형숙 (2005). Op. cit., p.252.
 - 29) Ibid., p.253.
 - 30) <http://www.samsungdesign.net>